

청년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Question 청년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Answer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서 4대째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중3 때는 보조교사를 하였고 고1 때부터는 정교사가 되었지요. 고1 때, 거절하는 아버지로부터 승낙을 받아내기 위해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지금까지 계속됐습니다. 특히 인턴 시절부터 지금까지 청년 및 청소년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화, 수, 목, 금 주 4일은 캠퍼스 사역을 합니다. 월요일은 너무 바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병원에 온종일 있습니다. 화요일부터는 병원에서 수술하고 진료하다가 오후 5시가 되면 무조건 병원 문을 나섭니다. 목요일의 청년 사역자 모임과 더불어 대구, 한동대, 진주에 가서 청년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하다가 새벽에 돌아오곤 합니다. 되돌아올 때의 피곤함은 하나님이 이런 저에게만 주시는 마약 같은 보약입니다.



이선일 울산소망정형외과 병원장 이면서 울산대학교 교역사, 장로이다. 부부가 함께 청년 사역자 교육 선교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20년 넘게 진화를 운영하며 여신영과 전문성을 갖춘 청년들을 양육하는 데 힘쓰고 있다. 올해의 세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서로 품과 비전을 심어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2011년 미스코리아 이성혜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1998년 12월부터는 뛰어난 영성과 탁월한 전문성이라는 양 기둥으로 설립된 HRC(소명학당, Hope Retreat Center)라는 청년연합공동체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150여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각자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딱히 “동기는 이것이다.” 라기보다는 전 청년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다. 그들과 얘기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거의 30분 이내에 그들의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이지요. 굳이 동기를 얘기하라면 청년사역에 행복함을 느끼다 보니 계속하게 되었고 그것이 청년사역의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Question 그동안 사역을 통해 얻은 성과에 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Answer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청년사역을 통하여 저 자신이 너무 행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역을 통해 얻은 성과를 말하려고 한다면 “저 자신의 풍성한 행복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둘째는, 지체들과 저 자신에게조차도 분명한 정체성을 일깨워 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지 않은 한 번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지? 무엇을 하다가 죽을 것인지 등 삶의 핵심가치를 알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통해 우선순위에 삶에서의 가치치기를 잘 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사역 동안 얻은 가장 소중한 것들이라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한 소중함, 그리고 소박한 지도자를 각 분야에 배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존의 지도자와는 달리 나라와 민족은 물론이요 전 세계 열방을 품는 150여 명의 뛰어난 영성과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

이 신통민족이나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지요. 이들의 과의 만남과 교제는 더할 수 없는 성과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과의 공동체를 1998년 이래 계속하여 변함없이 멘토링하며 지속해 온 것입니다. 이들은 저희 부부의 멘티이자 하늘나라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서 하라하신 동역자이며 보물이기도 합니다.

Question 청년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은 만났을 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로 어떤 문제였나요?

Answer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일부 청년들이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하며 무기력할 때입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엄청난 자기 연민과 비교의식 속에서 자괴감으로 허우적거리거나 아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딱히 “동기는 이것이다.” 라기보다는 전 청년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다.

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상한 눈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지요. 아무리 격려하고 세리 주려 해도 이미 그들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려주고 싶고 속이 터질 듯합니다.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품고 계속 시도에 보지만 불행하게도 그럴수록 기하적으로 자신을 하네하며 즐기려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면 너무 속상합니다.



둘째는 많이 기대하며 맘과 눈물로 양육하였던 제자가 어느 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때입니다. 왜 저를 많은 경우 그들은 오해를 안고 떠납니다. 왜 저들은 오해를 풀려는 시도조차 않을까를 의아해하며 고민을 하지요. 설상가상으로 드문 경우, 자신의 오해를 저에 대한 은근한 비난의 화살로 돌리기도 하는데 그것이 들고 돌아 저의 귀에 꽂힐 때는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셋째는 오랫동안 양육하였음에도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청년들을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지 않는 청년들을 볼 때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잘 되었음에도 남을 배려 않고 받은 것의 일부라도 후배들을 지원하지 않지요. 이런 뻔뻔한 청년들이 마음을 어떻게 합니다.

Question 그동안 청년사역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Answer 20여 년 이상을 청년사역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기억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를 들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성숙하게 양육된 형제제매가 아픔담에 깨끗하게 고백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주례를 부탁할 때입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주례를 함부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주례의 조건이 아주 엄격하지요. 신랑 신부는 반드시 저희가 오랫동안 양육하였던 지체에 현하며 더 나아가 양가 부모님의 동의와 그들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결혼비용이 500만 원 이상이던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Question 크리스천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Answer 가장 먼저는 영성과 전문성의 부조화로 말미암은 자괴감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성은 뛰어난 듯한데 전문성이 약한 청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경쟁력이 없기에 교회 내에서는 활기찬 듯하지만, 세상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요. 이때 저들은 자신들의 준비부족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회의하게 되지요. 한국교회 내의 청년사역자들은 교회 안 청년들의 진문성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그들을 마음껏 격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전공과 직업의 부조화입니다. 점점 더 취직이 어려워지다 보니 우선은 취직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대학의 전공과는 한참 거리가 먼 직장에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청년들은 그동안 기도해왔던 자신의 비전을 혼란스러워합니다. 청년사역자들은 훈련의 과정(Training Process)과 직업으로서의 소명(Vocational Calling)을 잘 설명하여 주고 청년들을 지속해서 격려해주었으면 합니다.

셋째는, 겨우 직장을 구하여 들어갔는데 전혀 신앙적인 분위기가 아니어서 힘들어하는 경우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깁은 이것이니 우리들의 믿음이니라 (요일5:4).”라는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시고 그곳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므로 순교하기까지 함께 나아가자며 더 많은 격려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차피 세상이 만만치 않으며 이미 지도자가 지녀야 할 자질이 있는 지체에게 사단은 어떻게든 공격하여 그 싹을 자르려 할 것입니다. 그런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를 간파하여 청년사역자로서 그들을 잘 지도해주셨으면 합니다.





빛깔은, 나이가 들어감과 함께 결혼하게 되면 현실을 바라보며 처음 가졌던 비전들이 흐그러드는 것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하게 되면 비전은 싱글 때의 반으로 줄어들고 아이가 생기면 결혼 때의 반으로 줄어들지요. 어느 날 그런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본인도 당황합니다. 동시에 지난날 함께 하였던 그 주님의 눈들도 그들에게는 상당히 거슬리게 되지요. 그 리하여 예전의 지체들을 피하거나 틀만 나면 그들에게 변명을 늘어놓고 자기 합리화를 반복하지요. 그러나 실상 내면적으로는 패배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청년들을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체들에게 지금 현실의 소중함과 더불어 미래의 비전을 되찾을 수 있게 기도과 격려가 많았으면 합니다.

다섯째는, 잘 준비된 재매들의 고행화입니다. 형제와 의 비율이 현저히 역진되어 이제 교회 안에서는 도무지 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는 중 세월은 흘러가 버리지요. 대안이 있다면 형제들을 특히 잘 양육하여 재매들의 짝을 준비해 주면 더 나은 대체인 연상녀 연하남으로 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음을 설명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사역자의 영성과 전문성입니다. 비저너리(Visionary)의 단순화 및 획일화는 21세기 100년을 책임질 지도자인 청년들을 한쪽으로 또는 폐쇄를 양성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여 평신도 전문 청년사역자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면 한국 교회 인의 전문인이나 달인들을 특별히 훈련해 청년들의 멘토(Mentor), 비저너리(Visionary)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QUESTION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의 역할 그리고 세계관 운동 사역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ANSWER
 먼저 취직 문제에서, 청년들이 교회생활은 열심히 하였으나 대화 졸업 후 취직이 안 되었을 때 파스한 마음과 격려를 아끼지 말되 교회에서 직장이 될 동안 습

연광홀(이신일 원장 제자)

대하 인화 후 교회를 떠나 한참을 방황하다, 결국 삶을 포기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 제 마음 기특한 마음은, 미안함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기다려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

다시 찾은 기쁨과 은혜 중에 이렇게 기도하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저도 다시 훈련받고 당신께 귀한 쓰임 받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이 신일 선생님이세요. 당시 출석교회의 청년부 부장 선생님이셨던 이 신일 선생님을 멘토로 모시고 그분을 통해 훈련을 받은 지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쉽고 재미있게 성경을 이해시켜 주셨고 때로는 호통으로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자상함으로 지난 14년 동안 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훈련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결혼할 때 부부주례를 시 주셨고, 결혼 5년 차인 현재까지도 애프터서비스를 해 주고 계십니다. 또 뱃속에 있는 제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제가 이 신일 선생님을 통해 배운 것 중 가장 큰 부분은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길로 인도하시고 언젠가 나를 그분의 귀한 도구로 꼭 쓰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현재 저는 은누리교회와 두란노해외신교회에서 국외 선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0여 개 국을 다니며 선교사님들의 사육과 성령의 환경들을 카메라에 담고 편집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한 분이 이 신일 선생님은 제가 사랑하는 분이시고 또 저를 무척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혹시 이런 게 아닐까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꼭 제 선생님과 같은, 누군가의 귀한 선생이 되겠습니다.

(사진은 연광홀, 조아정 부부의 결혼식인, 이신일 원장이 주례를 하였다)

